

# 가칭 '대중문화보호법'을 제안한다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던 일본대중문화의 개방문제가 조만간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만화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개방여부의 차원을 떠난 지 오래이며, 오직 남은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느냐는 문제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극히 "골치아프고 곤란한" 일본만화 수입개방 문제를 "無策(無策) 상책" 식으로 방기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로 과정을 달려왔던 것이다.

왜 그런가? 만화도 엄연한 도서인만큼 정식 출판권 계약을 체결, 번역출판하면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일본만화 수입을 공식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정책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심의를 의뢰해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만화 번역본은 법적으로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 합법출판인 동시에 문체부 방침을 어긴 불법출판물이라는 기형적이고 모순된 위치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업자들은 강제규정도 아닌 자율기구인 간행물윤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수정'을 거쳐 시중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TV나 극장, 또는 라디오라는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일본 대중매체와 달리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불법복제본과 판권계약에 의한 번역본의 구별이 불가능해져 단속도 하기 어려운 와중에 일본만화는 이미 개방을 해도 물량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정도로 들어올 만한 것은 다 들어와 깔려 있는 실정이고,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은 원본 그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특히 외설·폭력적인 저질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므로 정부는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대응책이란 시장을 개방하느냐 마느냐는 원론적이고 이미 옛날에 물 건너간 토론이 아니라, 한국의 만화시장과 작가들을 보호하고, 들어오는 일본만화를 양적·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만화를 사전심의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다. 일단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심의에서 통과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고 외설·폭력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작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통하여 상당한 물량의 조절효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일본만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번역출판되는 만화가 일본만화뿐이 아닐진대 유독 일본만화만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반발과 분쟁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국만화는 사전심의를 강제화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무의미한 개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허송세월해 왔고 그동안 거르지 않는 일본만화는 문화적·경제적 잠식을 거침없이 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일본만화가 제도권에 흡수된다면 일본출판사와 한국판권계약사가 합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복제(해적판)본의 적발에 앞장설 것이므로 대만이나 태국의 예를 비추어 만화시장 정화의 기대도 가능하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옮겨가면서 매스미디어의 위력은 날로 막강해지고 있으며 국경 없는 외국의 문화상품은 자칫 우리 민족의 주체성까지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본대중문화의 한국진출을 눈앞에 두고 이 기회에 우리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보호하고 대중문화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모든 외국의 대중문화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보호법'을 제안한다.

표지인물	2	문학적 면벽 20년의 고투, 그 壯觀 신작장편 「화두」 펴낸 최인훈씨
초점	4	서점가 휩쓰는 '논리책' 열풍의 허실 독서경험 뒷받침 안된 상태에서 겉핥기식 논리습득
현장취재	6	개방 앞둔 서점가 움직임이 심상찮다 — 최태원 외국유통업체 국내진출에 대형서점 지방점 개설도
서평	8	유초하 「한국사상사의 인식」 — 김교빈 이종은 「정치철학」 — 임효선 9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 임현진 10 와인버그 「아원자입자의 발견」 — 임경순 신경숙 「깊은 슬픔」 — 차창룡 11 윤대성 「남사당의 하늘」 — 김미도
출판화제	12	컴퓨터통신으로 도서주문판매 실시한다 한일아이피 북넷 등서 본격가동
새 잡지	13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계간 「대화」 창간호
출판화제	14	추천도서 목록치고 허술한 점 너무 많다 '한양대 필독교양서 100권'을 보며 느끼는 아쉬움
이 책 그 사람	16	「개꿈도 악이 된다」 낸 허수인씨 「한국인 트렌드」 낸 김경훈씨 17 「동해안 별신궁 무가」 낸 박경신교수 「어탁은 예술이다」 낸 김홍동씨
출판화제	18	가족학 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 있나 세계가정의 해 불구 출판량 의외로 적어
연재기획	20	시간과 역사 재구성하는 '체계의 기술'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③ 책과 사유의 건축술
초대석	23	'대중성' 추구하여 '전문성' 확보하다 발군의 마케팅전략으로 베스트셀러 펴내는 김영사
컬러화보	24	새봄 맞아 펼쳐진 일러스트 큰 잔치 '한국출판미술대전 1994' 지상전시
시론	26	컴퓨터출판이 오히려 책을 망치고 있다 — 임종기 편집 기본을 깨는 무책임한 실험 적지않아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